

2. 임신증상에 대한 지식은 복부가 커짐이 가장 많고, 입덧처리에 대하여는 오심구토는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가 최고, 임신중 영양상태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같이 섭취한다가 으뜸이며 유방관리의 필요여부는 잘 모른다가 수위였다. 또한 산전진찰을 시작하는 시기는 「잘 모른다」가 가장 많고, 진찰횟수는 「잘 모른다」, 태아성별이 결정되는 시기는 「잘 모른다」로 각각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다.

3. 산욕기간은 「1-2주」 분만후 산모 식사는 「분만후 곧 먹는다」로 높은 지식 수준이다. 분만후 땀물은 「가끔 한다」가 40.7%로 낮은 지식이며 산후운동에 있어서는 「잘 모른다」로 빈약한 지식이며, 초유 처리는 「먹인다」와 「짜버린다」가 각각 39.8%로 같음은 아이로니컬하다. 수유시기에 대해서는 「1일후 먹임」이 32.1%로 나타났다.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서부경남의 농촌 가임여성의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그 수준이 대체로 낮은편으로 생각된다.

## 무의농촌 영아들의 예방접종에 관한 실태조사

중앙의학 36권 6호 pp. 457~462, 1979.

서 남 순

경북 안동군 내 5개의 무료지역을 선정하여 1979년 1월 현재로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영아를 가진 어머니 196명을 대상으로 기본 예방접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# A. 예방접종별 지식도와 실천상황

1. B. C. G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18.3%이고, 접종완료율은 40.8%였다.

2. D. P. T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12.7%이고 접종완료율은 27.0%였다.

3. 소아마비 예방접종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20.4%이고, 접종완료율은 26.5%였다.

4. 홍역예방접종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33.7%이고 접종완료율은 43.9%였다.

B.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취득경로는 보건소 및 리·동사무소의 파견 간호원을 통해서가 32.4%로 수위였다.

C. 예방접종 실시장소로는 보건소 및 이동사무소가 58.1%로 수위였다.